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 최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의 불안정과 급격한 ‘전세의 월세화’로 인해
임대료 증가 외에도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불릴 만큼
빠르게 상승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집합건물은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되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유형임에도 관리비 공개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법적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동일한 주거비 부담 구조임에도
관리비 세부내역 접근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특히 서울 청년세대의 집합건물 거주 비중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투명한 관리비 정보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 이에 집합건물 관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민과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관리비 공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비 장부의 작성과 보관을 넘어

‘대외적 공개’로 법적 의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관리비 내역을

입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